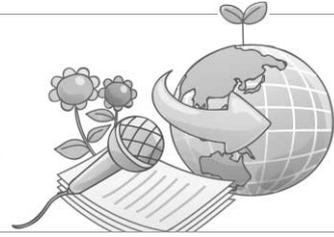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람사르 총회에서 '철새가 AI 원인' 여부 논란



지난 10월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에서 철새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퍼뜨리는 원인인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상진 역학조사과장은 이날 총회의 'AI와 습지 심포지엄'에서 "철새에 의해 AI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겨울철새, 외국인, 여행객, 불법으로 수입된 조류, 사료 원료 등을 대상으로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입원과 전파 경로를 조사한 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철새의 분변 등에서 AI 바이러스와 항체가 검출되고, 특히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바이러스와 거의 동일했

다"고 설명했다. 또 "AI 바이러스의 발병시기가 철새 도래시기와 일치하고 발병지역도 철새가 날아드는 지역과 동일해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람사르 협약 STRP(과학기술검토패널)는 철새보다는 가금류로 만든 생산물, 불법으로 수입된 조류, 사람의 이동 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STRP는 지난해 2월 영국의 서포크 지방의 칠면조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헝가리의 가금류 농장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했다며 AI 바이러스는 가금류에서 가금류로 이동되지, 철새에서 가금류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습지 감소로 철새가 농장 근처로 이동해 오리나 닭 등 가금류와 접촉하면서 중간 매개체에 의해 AI 바이러스가 철새에게 옮겨진다고 주장했다.

STRP는 "AI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습지를 파괴하고 물새를 죽이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각국 정부는 AI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닭갈비, 내년부터 명품화 사업 추진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 닭갈비를 명품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원 등 30억원을 들여 제품 규격화, 원료육 사양기술 개발 등 춘천닭갈비 명품화 사업을 벌인다.

이번 명품화사업은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 닭갈비를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향토음식으로 육성, 새로운 웰빙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춘천시는 명품화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춘천닭갈비협의회, 춘천육계발전협의회, 강원대, 관련 연구소가 참여하는 춘천닭갈비명품화사업단(단장 신해식 강원대교수)을 발족,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여왔다.

춘천시는 내년에 국비 5억원과 시예산, 농가, 업소 자부담 등 10억원을 투자해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명품화사업은 ▲역량강화사업으로 컨설팅, 농가, 음식점 교육 및 견학 ▲조사 연구 사업으로 명품화 연구용역, 홍보 및 마케팅, 외식홍보 행사 ▲명소화 사업으로 지리적 표시, 업소 이미지 개선지원, 테마 닭갈비사업, 인증패 부착 ▲개별지원사업으로 청정사육 환경지원, 유통지원, 주방 화장실 등 환경개선 사업 등이다.

춘천시는 명품화 사업을 통해 현재 평일 8톤, 일요일 10톤 가량 소비되는 원료육을 지역 자체에서 생산된 닭을 쓰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춘천지역 270여개 닭갈비 업소와 닭을 전업으로 사육하는 13농가(1백만수)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내년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명품화 사업을 통해 닭갈비를 세계적인 명품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부타임즈

광주지역에 계란자판기 설치



“버튼을 누르면 신선한 달걀이 나옵니다.”

매일 새벽 닭이 낳은 신선한 달걀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계란 자동판매기’가 국내 처음으로 경기 광주시 한 아파트에 등장했다.

지난 11월 1일 광주시 경안동 해태그린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설치된 이 자판기는 높이 1.75m, 너비 1.5m 크기로, 커피 등 음료수 자판기 처럼 지폐 또는 동전으로 2,500원을 넣으면 10개들이 달걀 한 꾸러미가 나오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반 자판기처럼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달걀이 깨지기 때문에 우편함처럼 생긴 보관함 40개를 만들어 그 안에 달걀팩을 넣어 놓았는데, 사고 싶은 달걀을 고른 뒤 원하는 번호 버튼을 누르면 투명 아크릴판으로 만든 보관함 문이 열려 달걀 꾸러미를 꺼낼 수 있다.

이 자판기는 광주지역 6개 산란계 농가로 꾸러진 다한영농조합법인(대표 이만형)이 설치했는데, 이 아파트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조합 소속 농장에서 매일 아침 갓 낳은 달걀을 자판기에 채워 놓는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신선도가 뛰어나고 시중보다 1천원 가량 싼 값에 달걀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자판기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법인 쪽에 사업제안을 해, 자판기 개발비 등 전체 사업비 6천만원 가운데 40%를 지원했다.

조합 쪽은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며 “이달 초 자판기 9대를 추가로 만들어 주요 아파트 단지과 시청 민원실, 농·축협 등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신문

안흥고교 학생들이, 닭 키워 봉사 활동

인근 지역 독거노인을 수년째 돌봐 온 강원도 횡성군 안흥고교 학생들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교생이 60여 명인 이 학교 학생들은 2004년부터 5년째 지역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돼주고 집안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여 왔다.

특히 올 3월부터는 학교 뒷마당에 양계장을 만들고 닭을 길러 독거노인 9명에게 매주 토요일 한 마리씩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요리를 해 대접하기도 하면서 외로운 노인들과 돈독한 정을 쌓고 있다.

현재 학교 양계장에는 70여 마리의 닭이 있으며 학생들은 급식소 잔반이나 집에서 가져 온 배추와 양배추 등 채소를 먹여 키우고 있다.

학생들의 선행은 이미 널리 알려져 지난 1년간 무려 9개의 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권오승 교사는 “아이들이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하면서 자신들의 모습도 덩달아 밝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미국

4분기 닭고기 생산량 92억 파운드 예상

8월 도계수수가 7.0% 감소하여(7억4천만수) 8월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 동월 보다 3.2% 감소한 31억 파운드였다. 평균 생체중

지구촌 양계뉴스

은 5.57파운드(2.6kg)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올해 1~8월 닭고기 생산량 증가의 원인은 평균 생체중이 5.57파운드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했기 때문이다.

7월과 8월 닭고기 생산량이 당초 예상치보다 증가하면서 2008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3.2% 증가한 94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그러나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한 92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생산성이 전년보다 호전되면서 생체 출하체중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지난 9월 13일~10월 11일까지의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7년 동기대비 4.2% 감소했다. 사육기간(대략 7, 8주)을 감안하면 이 기간의 병아리 생산수수 감소는 4분기에 도 계수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종란 입란실적 또한 전년보다 감소했다.

닭고기 생산량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3, 4분기말 닭고기 재고는 각각 7억4천만 파운드, 7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8월말 냉동 닭고기 재고량은 7억 2천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미절단 냉동 재고는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67% 증가했으며, 다리살 부분육(1/4다리살, 북채, 넓적다리살 등) 재고량 또한 전년 보다 크게 증가했다.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가슴살과 날개와 같은 브로일러 제품의 가격 하락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9월 북

동부 시장의 빼 없는 가슴살 가격은 파운드당 1.15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7% 하락한 43센트였으며, 날개 가격은 파운드당 95센트로 전년 동월대비 28% 하락한 37센트였다. 2008년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가격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USDA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가금육 수입 일시 정지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약독성의 조류인플루엔자(H5 아형)의 항체 양성례가 확인되었다는 정보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고 캘리포니아주로부터의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2008년 11월 13일부로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뉴욕주, 뉴햄프셔주 및 아이다호주에서는 약독성 타입의 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의 가금육 또한 수입을 정지하고 있다.

- 일본 농림수산성

캐나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실마리… 알이 먼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오래 된 수수께끼가 마침내 답을 찾은 것으로 보인



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캐나다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를 인용해 보도했다.

답은 ‘알’이 먼저라는 것이고 답을 제공한 단서는 7천700만년 전 공룡알 동지에서 나왔다.

캘거리 대학과 앨버타 소재 티렐 박물관의 과학자들은 지난 1990년대에 미국 몬태나주 북부 지역의 강가 모래톱에서 발견된 공룡 알 동지가 타조처럼 생긴 시아나그나티드, 또는 작은 맹금류에 속하는 드라메오사우리드의 것이라고 추정했다. 둘 모두 공룡으로서는 작고 오늘날의 새와 유연관계에 있는 것들이다.

지름 50cm 정도의 동지 속에는 최소한 5개, 최대 12개의 부분적인 알 화석이 남아 있었는데 연구진은 강물이 불어 오르자 어미 공룡이 부화되지 못한 알들을 버려두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동지의 특징이 새의 동지와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어미가 알을 품고 동지를 만들고 끝이 뾰족한 알을 낳는 등 새들의 특성이 언제부터 유래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본질적인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닭을 비롯한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하기 훨씬 전부터 육식 공룡들은 새 동지와 같은 동지를 만들고 새와 같은 방식으로 새의 알과 같은 알을 낳아 온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태국

북부 9개주에 AI 비상 경계령

닭고기 수출 세계 4위국인 태국에서 10개월만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발하자 보건당국이 북부 9개주(州)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파이차이 와라чит 보건부 차관은 지난 11월 13일 “AI가 재발한 북부지방 9개주를 특별 경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지역 각 병원은 실험실 실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AI로 의심되거나 원인 모르게 가금류가 폐사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즉시 치료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업부는 수코타이주(州)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닭 7마리가 지난달말 폐사한 후 실험실 실험 결과 이 농가의 닭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뒤이어 지난 4일 인근 우타이타니 주에서도 농가에서 기르던 닭 200마리 가운데 일부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

태국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올 1월에 2건이 확인된 이후 10개월만이다.

습삭 프라사나-아난타쿨 장관은 “AI가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고 이 지역의 가금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